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 범죄의 설명요인들과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 성 식*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의 사이버범죄 연구에서 주목받아 왔던 일상긴장, 법위반태도,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SNS이용시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그 주요 요인들이 익명상황에서 더 영향력을 갖는지를 알기위해 그 요인들과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재학중인 SNS사용자 대학생 486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과 학업에서의 긴장 및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SNS상에서의 법위반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는데 무엇보다 SNS이용시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관심인 그 주요 요인들과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는 SNS상 법위반태도와 익명성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나타내 SNS상 법위반에 긍정적 태도를 갖는 학생이 익명의 상황에서 SNS상에서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라는 본 연구가 설의 일부를 지지했다. 하지만 나머지 요인들과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제시했다.

- ❖ 주제어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이버범죄, 익명성, SNS이용시간, SNS상 법위반태도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I. 서론

우리나라는 인터넷 초강국으로서 인터넷사용의 확산으로 소통과 교류, 정보이용, 여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민주주의 등에 기여했고, 더구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으로 더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이버범죄와 같은 역기능의 현상도 대두되었는데 SNS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 및 수도권 14-59세의 SNS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9%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그 경험은 적은 편이지만 피해는 16.9%가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단순한 욕설에서부터 비방과 허위사실의 글과 영상의 유포, 성희롱과 스토킹, 개인 사생활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해성, 박성훈, 2013).

여기서는 이와 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로 불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의 범죄에 주목한다. 그러한 연구는 국내에서 몇 연구를 제외하고는(윤해성, 박성훈, 2013; 이성식, 2013)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누가 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 원인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그동안의 사이버범죄 연구들에서는 여러 범죄이론들을 온라인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동에 적용하면서 그 설명요인을 모색해 왔듯이(이성식, 2011), 여기서는 그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던 주요 요인들을 SNS상의 범죄에 적용해 보기로 하는데, 일상긴장, 법위반태도,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SNS이용시간 등이 그것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겪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표출로, 혹은 인터넷이나 SNS 이용중에 법위반의 태도를 학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지,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의 충동적인 성향에 의해서인지, 더구나 SNS를 오랜시간 사용하다 보면 그만큼 범죄기회가 많아 SNS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를 경험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이 연구가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위의 요인들이 익명성과 상호작용효과를 갖는지에 있다. 사실 SNS에서는 다른 인터넷게시판보다는 범죄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는데 그것은 SNS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로가 모르는 익명의 사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잘 아는 사이인 사람과 자신을 밝히는 상태에서 교류가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유로 대부분의 SNS이용자들은 여러 범죄동기와 태도, 성향, 기회를 갖추고 있어도 범죄를 덜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성식(2013)은 인터넷게시판보다 SNS상에서 범죄가 낮은 것이 익명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SNS이용중에서는 익명사용에 차이가 있어 SNS이용상에서 자신을 밝히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범죄 가능성이 낮지만 자신을 밝히지 않는 익명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는 범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익명성 여부는 SNS상의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며 범죄를 억제 혹은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즉 앞서 SNS범죄를 설명하는 일상긴장이나 SNS에서의 범위반태도, 낮은 자기통제력, 높은 SNS이용시간의 범죄요인도 익명이지 않은 상황에서보다 익명의 조건에서 더 범죄에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SNS상의 범죄에 있어 익명성을 주요 요건으로 보고 여러 범죄의 설명요인들이 과연 익명의 상황에서 범죄에 더 작용하고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그 주요 요인들과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그동안의 사이버범죄 연구에서의 여러 주요 요인들을 적용해 보고, 그것들이 과연 익명성과 상호작용을 하여 범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효과의 논거를 기존 이론과 연구들에서 찾고자 하며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실제로 과연 그런지를 경험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그 결과가 갖는 함의를 논의해보려는 것에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논의

1. 사이버범죄에 있어 기존의 주요 설명요인들

가. 일상긴장

기존의 고전적 긴장이론에서는 범죄의 원인으로 하층이 겪는 구조적 제약과 그에 따른 긴장에 주목했었다. 하지만 이후 연구들에서 계층과 범죄의 관련성이 낮은 것이 제시되면서 계층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긴장을 범죄의 원인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은 그 대표적 논의로,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가정, 학교, 친구관계 등 일상생활에서의 긴장이 비행의 원인이 되고, 이때 그러한 긴장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의 해소가 비행의 동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그동안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 왔고(Agnew, 2001), 그러한 일상긴장요인들은 사이버범죄에도 잘 적용되어, Patchin과 Hinduja(2011)는 일상긴장과 그로 인한 화와 좌절감이 사이버불링의 주요 동기이자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국내연구에서도 홍영수와 김동기(2011)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다른 주요 요인들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 긴장과 스트레스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제시했으며, 이성식과 전신현(2012)은 청소년패널자료 분석연구에서 학업긴장이 사이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처럼 일상긴장은 현실에서도 주요 요인의 하나였지만 사이버범죄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제시되고 지지되어 왔다.

나. 법위반태도

Sutherland에 기초한 차별접촉이론/사회학습이론에서는 범죄를 주위 사람들과의 차별접촉을 통해 학습한다고 보았다(Akers, 1985). 즉 범죄에 우호적인 사람과 접촉할수록 그들로부터 친범죄적 정의와 태도를 학습하게 되고 그러한 태도대로 행동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 즉 주위로부터 학습으로 인한 법위반태도가 범죄의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는 것을 검증

해 왔다(Matsueda, 1982). 그러한 주장들은 사이버범죄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왔는데, 초기의 연구에서 Skinner와 Fream(1997)은 인터넷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갖는 정의와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했고, 이후에도 저작권침해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꾸준히 적용되어 왔는데 그 태도의 설명력이 크다는 것이 제시되어 왔다(Higgins and Makin, 2004; Higgins and Wilson, 2006). 그와 같은 주장은 국내 저작권침해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이성식, 2010a), 악성댓글과 같은 인터넷폭력 연구에서도 지지되어(이성식, 2006) 법위반의 정의나 태도가 가장 강력한 설명요인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 낮은 자기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범죄가 즉각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따라서 범죄의 원인이 순간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통제력이라고 했다. 자기통제력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양육에 의해 형성된 안정된 성향이라고 보면서 그것은 청소년과 성인시기에도 다른 환경요인들과 독립적으로 범죄의 중요하고도 유일한 설명요인이라고 보았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주장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지지되어 왔다(Gibbs and Giever, 1995; Pratt and Cullen, 2000).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범죄에서도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Higgins, 2005; Buzzell et al., 2006; Malin and Fowers, 2009), 국내에서도 이성식(2006)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다른 요인들보다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이후의 그 외 연구들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이성식, 2010b; 정혜원, 2010; 차은진, 2012).

라. 인터넷이용시간

기존의 주요 범죄이론들이 주로 범죄자 개인특성이나 사회환경요인에 주목했던 반면, 범죄발생의 상황이나 기회여건에 주목한 논의도 있다. 고전주의에 기반한 생

활양식과 일상행위이론이 그 대표적 논의로, 범죄기회의 기회요인이 범죄가 일어나기 위한 요건이 된다고 보았고, 이들 논의는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연구들에서 그동안 지지를 받아 왔다(Hindelang et al., 1978; Cohen and Felson, 1979; Meier and Miethe, 1993). 그러한 논의는 범죄피해이외에 범죄가해 연구에도 적용되어, 예를 들어 우연한 범죄기회에 노출될수록 피해 가능성도 높지만 우연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Osgood et al., 1996). 그와 같은 기회요인들은 사이버범죄를 설명함에도 적용되어 왔는데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적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연한 범죄기회에 더 노출됨으로 해서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것이 주장되었다(이성식, 2005a; 이창호, 이정상, 2013). 최근 이성식(201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일탈과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에서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했는데 범죄기회이론에서의 인터넷이용시간과 같은 기회요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사이버범죄의 설명요인들과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

가. 익명성

익명성은 인터넷공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평소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해체시키는 탈억제현상을 일으킨다고 주장된다. 몰개성화 논의에 의하면 익명성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하고 반규범적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고 본다(Kiesler et al., 1984; Postmes and Spears, 1998).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익명성은 인터넷에서의 범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이성식(2005b)은 평소 익명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주위 사람들을 덜 신경쓰고 그리고 내적 통제가 약하게 되어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고, 유상미와 김미량(2011)은 익명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규범의식이

약하고 또한 왜곡된 정체성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을 더 저지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SNS상의 범죄연구에서도 익명성이 주요 설명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하듯이(이성식, 2013)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익명성은 사이버범죄의 주요 원인중 하나임에도 기존 경험연구들에서는 그 검증에서 다소 소홀했는데 그럼에도 사이버범죄 연구에서 익명성은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서, 익명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이버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익명성은 앞서 제시한 여러 요인들과 각기 개별적으로 사이버범죄에 작용할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작용하여 그 요인들의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즉 SNS에서의 사이버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여러 주요 요인들과 익명성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 논의의 근거는 다음에서와 같다.

나. 주요 설명요인들의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

일상긴장은 기존 현실 오프라인 범죄연구에서보다 오히려 사이버범죄를 설명할 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현실 오프라인에서는 긴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로 아무 때나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면, 익명의 온라인 상황에서는 일상긴장을 아무 제재 없이 더 쉽게 범죄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긴장은 익명상황에서 범죄의 원인으로 더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일상긴장을 범죄의 원인으로 강조한 일반 긴장이론(Agnew, 1992)에서는 일상긴장과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 이외에 그것과 상호작용할 다른 조건적 변인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것은 사회유대 정도나 위반자와의 접촉 등의 다른 요건들로, 일상긴장은 그 자체로서는 범죄설명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다른 범죄발생의 요인들과 함께 작용할 때 범죄를 잘 설명한다고 보았다. 즉 일상긴장은 사회유대가 약하고 위반자와의 접촉 등의 범죄유발의 조건에서 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사이버범죄를 설명할 때 익명상황은 그러한 요건의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일상긴장은 익명의 상황에서 더 사이버범죄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상긴장은 그 자체로도 독립적으로 사이버범죄를 설명할 수 있지만 남수정의 연구(2011)에서도 제시되듯이 일상긴장의 사

람들은 익명의 상황일 때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르게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범위반태도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의 상황에서 더 사이버범죄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의식이론(Matheson and Zanna, 1988)에 따르면 익명의 상황에서는 공적 자아의식은 낮지만 사적 자아의식이 높아져, 행위자가 평소 갖고 있던 소신과 태도대로 행동한다고 보았다. 즉 사이버범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익명의 상황에서 그 태도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지만 범위반에 긍정적인 사람은 반규범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익명의 상황에서 더 더욱 개인이 학습한 태도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Joinson, 2003), 실제로 이성식의 사이버언어폭력 연구(2005b)에서 범위반태도는 익명성과 매우 강하게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해, 개인의 범위반태도가 익명의 상황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범위반태도는 익명성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익명의 사이버공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더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사실 Gottfredson과 Hirschi가 범죄의 설명요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이라는 개인성향에만 주목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실증주의와 고전주의의 논의를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일상행위이론(Cohen and Felson, 1979)에서의 논의를 통합하려 했듯이, 범죄설명에 낮은 자기통제력이외에 범죄기회는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했었다. 초기 학자들은 Gottfredson과 Hirschi의 논의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에만 주목했지만 이후 논의들에서는 그러한 점을 다루기 시작했는데(Longshore, 1998; Longshore and Turner, 1998; Hay and Forrest, 2008; 이성식, 2010b), 즉 낮은 자기통제력은 범죄기회가 높은 상황에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논리를 사이버공간에 적용해 볼 때 익명상황을 사이버범죄에 있어 주요 범죄기회요건으로 볼 수 있다면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은 익명의 상황에서 더욱 더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낮은 자기통제력은 익명성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제시한 인터넷사용시간의 경우 그것이 익명성과 상호작용할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나 기존 연구는 부족하다. 하지만 두 요인 모두 기회요인으로서 사이버범죄에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범죄기회

는 하나의 요건보다는 여러 기회요인들이 동시에 존재할 때 범죄가 더 발생하기 쉬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인터넷사용시간이 많은 사람이 사이버범죄 가능성이 높지만 특히나 그들이 익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범죄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이버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인터넷사용시간은 익명성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연구가설과 방법

1. 연구가설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대로 기존 사이버범죄 연구에서 주목받아 왔던 요인들, 즉 일상긴장, SNS상의 범위반태도,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SNS이용시간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다루기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 근거해 볼 때 그와 같은 요인들은 사이버범죄를 잘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SNS상의 사이버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1: 일상긴장이 많을수록 SNS상의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다

가설 1-2: SNS상의 범위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SNS상의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다

가설 1-3: 낮은 자기통제력의 성향을 가질수록 SNS상의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다

가설 1-4: SNS이용시간이 많을수록 SNS상의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앞서 여러 이론과 논의들을 기초로 논의해 볼 때 일상긴장, SNS상의 범위반태도,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SNS이용시간 등은 익명성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며, 각각 일상긴장, SNS상의 범위반태도,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SNS이용시간은 익명이 아닌 상황에서는 SNS상의 범죄에 작용

할 가능성이 낮지만 익명의 상황에서 더 사이버범죄에 정(+)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가설 2-1: 일상긴장요인들은 SNS상의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2-2: SNS상의 범위반태도는 SNS상의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2-3: 낮은 자기통제력은 SNS상의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2-4: SNS이용시간은 SNS상의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가설들을 다음의 경험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검증해 보기로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SNS이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청년층이나 성인의 이용률이 높는데 여기서는 조사가 용이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며, 서울시에 재학중인 대학생에 국한하여 조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총 여덟 개의 학교를 선정했으며, 조사는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학교 100여명씩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식은 여러 층별로 할당표집을 했는데, 지역으로는 한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지역별로 두 개씩의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였고 각 학교에서는 자연/이공계와 인문사회/경상계 학생이 절반씩 표집되도록 했으며, 남녀, 그리고 학년별로도 고려해서 표집하도록 하였다. 조사후 불성실한 응답 38부를 제외한 762부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그 중 SNS사용자는 486명으로 응답자중 63.7%를 차지했고, 여기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인들로 일상긴장요인으로서는 가정과 학업에서의 긴장을 주 긴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기존 연구들에 의거(Agnew, 2001), 가정긴장은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 “나는 부모님과 마음이 안 맞는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한다”의 세 문항을($\alpha=.892$), 학업긴장은 “나는 학교에 잘 적응 못한다”, “나는 학교가기가 싫다”, “나는 학업에 흥미가 없다”의 세 문항을($\alpha=.693$) 사용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SNS상의 범위반의 태도는 “SNS상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괜찮다”의 하나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의 연구에 의거하여(Grasmick et al., 1993), 충동성, 위험 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활동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특성에 대해 두 문항씩의 질문을 하였는데, 예컨대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총 열두개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37$).

SNS이용시간은 개방형의 질문으로 하루 평균 SNS에서의 사용시간을 질문하였다.

위의 요인들과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볼 익명성은 “SNS상에서 나는 익명의 상태에서 주로 아이디명을 사용한다”, “SNS상에서 나는 실제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SNS상에서 나는 나 자신을 감추게 된다”의 세 문항을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26$).

종속변인으로 SNS상의 범죄의 경우는 단순욕설에서부터 사이버범죄의 여러 유형들로 폭력, 음란, 성범죄의 내용범죄 및 재산과 정보침해, 그리고 해킹 등 신종범죄에 이르는 행위를 포함하는 범위반 행위로 규정한다(이성식, 2011). 이에 1)단순욕설, 2)명예훼손/비방, 3)허위사실/유언비어유포, 4)집단괴롭힘, 5)협박/위협, 6)스토킹, 7)성희롱, 8)성매매제의, 9)음란물게시, 10)개인정보사용, 11)불법촬영 및 유포, 12)해킹, 13)악성코드유포, 14)스팸메일유포, 15)사기, 16)저작권침해 등 열여섯 개의 항목을 선정하고 각각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 횟수를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응답에 ‘없다’, ‘1회’, ‘2-3회’, ‘4-9회’, ‘10회 이상’에 0-4점을 부여하였고 최종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 합산한 이유는 단순히 횟수를 합산할 경우 그 빈도가 많은 단순욕설과 같은 범죄행위가 전체범죄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각 항목을 ‘없다’와 ‘있다’로만 구분하여 합산할 경우 그 방

식은 그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의 다양성을 측정할 뿐 그 빈도를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에서 그와 같이 응답에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합산값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좌측으로 편향되어 다중회귀분석에서 OLS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그 값을 로그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인으로 성은 여자(=0)와 남자(=1)를 더미화하였고, 연령은 태어난 연도를 묻고 연령으로 재부호화를 하였다.

IV. 분석결과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자 통제변인으로 사용할 성의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274명(56.4%), 여성은 212명(43.6%)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다. 연령은 18세부터 28세까지의 분포에서 평균연령은 21.74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요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결과

구분	명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	남성	274	56.4		
	여성	212	43.6		
연령			21.745	2.324	18-28
가정긴장			6.437	2.324	3-15
학업긴장			6.658	2.281	3-15
SNS법위반태도			3.635	1.098	1-5
낮은자기통제력			33.337	6.846	12-60
SNS이용시간			1.940	2.010	0-12
익명성			6.813	2.810	3-15
SNS범죄			.207	.532	0-2.89

본 연구에 사용할 주요 독립변인으로 가정긴장은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6.437로, 학업긴장은 6.658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SNS상 범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1-5범위에서 3.635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SNS에서의 범위반에 부정적이지는 않고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범위에서 평균값이 33.337로 그 점수가 낮았고, SNS이용시간은 하루중 0-12시간범위에서 평균값이 1.940으로 약 2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요인들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SNS에서의 익명성은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6.813으로 그 점수가 낮아 대체로 SNS이용시 익명사용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으로 사용할 SNS상의 범죄를 로그화한 후의 결과는 0-2.89범위에서 평균값이 .207이었고 그 정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주요 원인들의 SNS상의 범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SNS범죄	
	b	β
남성	.130*	.119
연령	-.001	-.006
가정긴장	.013	.054
학업긴장	.012	.052
SNS범위반태도	.041*	.083
낮은자기통제력	.001	.019
SNS이용시간	.048***	.178
R제곱	.064	
F값	3.812***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 2>는 본 연구에서의 주요 요인들로 일상긴장, SNS상의 범위반태도,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SNS이용시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SNS상의 범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를 보면 긴장요인으로 가정긴장은 사이버범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고 학업긴장 역시 그 영향력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에서 사이버범죄행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었던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도 SNS상의 범죄에 대한 영향에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긴장요인들이나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충동성요인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대학생들의 SNS상의 범죄는 표출적이고 충동적 행위는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한다.

SNS상의 범위반에 대한 태도는 SNS상의 범죄에 $p<.05$ 수준에서 비록 작지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상의 범죄에 호의적 태도를 가질수록 SNS상의 범죄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사이버범죄연구에서 태도요인이 중요했다는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는 SNS사용시간의 영향력이 중요해 SNS사용시간이 많을수록 $p<.001$ 수준에서 SNS상의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화된 회귀계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한 사회배경변인으로서는 남성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SNS상에서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SNS상의 범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제시했다.

한편 <표 3>에서는 본 연구에서 보다 관심을 갖는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위의 일상긴장요인들, SNS상의 범위반태도,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SNS이용시간과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를 보면 SNS상의 범위반태도와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p<.05$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SNS상의 범위반에 호의적인 응답자들이 익명의 상황에서 더욱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예측과 달리 일상긴장요인들이나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SNS이용시간은 익명성과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고, 다만 SNS사용시간이 독립적으로 $p<.001$ 수준에서 SNS상의 범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원인들과 익명성간의 SNS상의 범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SNS범죄	
	b	β
남성	.141**	.129
연령	-.004	-.017
부모긴장	.014	.060
학업긴장	.012	.048
SNS범위반태도	.046*	.092
낮은자기통제력	.003	.042
SNS이용시간	.049***	.183
익명성	.009	.045
부모긴장*익명성	.003	.042
학업긴장*익명성	.000	.004
SNS위반태도*익명성	.015*	.093
낮은자기통제력*익명성	.000	.011
SNS이용시간*익명성	.005	.049
R제곱	.076	
F값	2.856***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의 사이버범죄 연구에서 주목받아 왔던 그 주요 설명요인들로 일상긴장요인들, SNS상의 범위반태도,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SNS이용시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무엇보다 그 요인들이 익명의 상황에서 더 작동되는지를 알기위해 그 요인들과 익명성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SNS사용시간이 SNS상의 범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임을 제시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인터넷사용시간이 많거나 인터넷 중독자가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결과에서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SNS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SNS상에서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는 적절하게 SNS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SNS상의 범죄의 주요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긴장요인들의 영향력은 미비했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던 개인성향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도 그 영향력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장의 영향력 자체가 SNS상 범죄 설명에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긴장의 요인들로 기존 청소년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가정과 학교긴장을 선정한 것이 대학생 대상에서는 부적절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요인의 영향력이 낮았던 것도 기존 청소년과 달리 좀 더 성숙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결과는 SNS상에서의 범죄는 우발적이거나 긴장표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듯이(남수정, 2011, 차은진, 2012), 일상긴장요인들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SNS이용시간을 매개로 하여 SNS상의 사이버범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일관되게 법위반에 대한 태도가 비록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SNS상의 범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상에서 법위반에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SNS상의 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것을 제시했다. SNS상에서는 가까운 친구나 친지와는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법위반태도를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한 태도학습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SNS에서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법위반 학습환경의 개선이나 윤리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 관심으로 위의 요인들과 익명성과의 상호작용효과의 검증결과를 보면 본 예측과 달리 일상긴장 및 낮은 자기통제력이 익명성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지지 못한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그 논리적 근거를 일반긴장이론이나 일반이론에 두었으나 사실 일반긴장이론이 조건적 통합논의에서 그리고 일반이론에서도 익명성과 같은 기회요인을 구체적으로 조건적 요인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두 이론이 모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두 이론을 확대해 보면

그 상호작용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상긴장 및 낮은 자기통제력이 본 연구의 또 다른 기회요인으로서 SNS사용시간과 상호작용효과를 갖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마도 본 연구에서 SNS상의 범죄에서 긴장요인과 낮은 자기통제력의 두 이론의 요인들이 그 자체로 설명력이 낮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효과도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SNS사용시간은 독립적으로만 큰 영향력을 나타냈지 익명성과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사용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익명적으로 사용할 때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익명성과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요즘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늘 휴대하고 다니면서 인터넷 및 SNS사용시간이 증가하는 시점에 있어 앞서 언급한대로 사용시간조절이 필요한 과제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자아의식이론대로 또 기존 국내 사이버범죄 연구에서 밝힌 대로(이성식, 2005b) 개인의 범위반태도가 익명성과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했고 이는 본 연구의 상호작용효과와 가설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지되는 결과였다. 이는 사이버범죄에서 개인의 태도가 익명의 상황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여타 사이버공간에서는 물론 SNS사용중에서도 익명의 상황이 어느 정도 있기에 범위반태도의 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윤리의식 등이 길러지는 것이 주요 대책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설명요인들의 설명력은 그다지 만족할 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SNS에서 범죄가 낮아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인지, 조사대상이 범죄 가능성이 낮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지, 다른 방법론상의 문제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는 앞으로 새로운 공간이라 할 수 있는 SNS 상에서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새로운 요인의 발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앞으로는 새로운 요인의 발견 등 그러한 연구들을 더욱 기대해 본다. 그리고 앞으로는 앞서 논의의 재검증이나 새로운 요인의 발견을 위해서라도 SNS사용층의 확대에 따른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청소년 등 더 다양한 대상으로 하는 논의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참고문헌

- 남수정 (2011).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와 익명성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9(2):63-74.
- 성동규, 김도희, 이운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19:79-129.
- 유상미, 김미량 (2011). 사이버폭력의 원인에 대한 구조모델의 제시와 검증. *한국컴퓨터교육학회지* 14(1):23-33.
- 윤해성, 박성훈 (2013). SNS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성식 (2004).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273-299.
- 이성식 (2005a). 인터넷중독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정보화정책* 12(3):33-47.
- 이성식 (2005b).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6(1):77-108.
- 이성식 (2006).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3(6):179-200.
- 이성식(2010a). 청소년의 온라인 저작물 불법다운로드 행위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의 영향 및 상호작용효과. *청소년학연구* 18(10):123-142.
- 이성식 (2010b).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에의 영향 비교: 일반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1):203-233.
- 이성식 (2011). 사이버범죄학: 원인, 유형, 대책. 그린.
- 이성식 (201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의 불법행동과 그 원인으로 사회자본과 그 쟁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4(2):263-290.
- 이성식 (2014). 대학생의 사이버일탈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주요 네 이론에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4:145-168.
- 이성식, 전신현 (2012). 인터넷사용, 일상긴장, 비행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23(3):293-318.

이창호, 이경상 (2013).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3):259-285.

정혜원 (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비행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263-288.

차은진 (2012). 중학생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중독, 인터넷윤리의식, 사이버비행의 연쇄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1-27.

홍영수, 김동기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사이버비행의 구조적 관계: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127-148.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47-87.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319-61.

Akers, R.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2nd. Belmont, CA: Wadsworth.

Buzzell, B., Foss, D. and Middleton, Z. (2006). Explaining Use of Online Pornography: A Test of Self-Control Theory and Opportunities for Devi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13:96-116.

Cohen, L. and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588-608.

Gibbs, J.J. and D. Giever. (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12:231-5.

Gottfredson, M.R.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Grasmick, H.G., Tittle, C.R., Burski, R.J. and Arneklev, B.K.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5-29.
- Hay, C. and Forrest, W. (2008). Self-Control Theory 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The Case for a More Systematic Union. *Criminology* 46(4):1039-71.
- Higgins, G.E. (2005). Can Low Self-Control help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Software Piracy Problem? *Deviant Behavior* 26:1-24.
- Higgins, G.E. and Makin, D.A.(2004). Does Social Learning Theory condition the Effects of Low Self-Control on College Student's Software Piracy? *Journal of Economic Crime Management* 2:1-22.
- Higgins, G.E. and Wilson, A.L.(2006). Low Self-Control, Moral Beliefs and Social Learning Theory in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Software. *Security Journal* 19:75-92.
- Hindelang, M.S., Gottfredson, M.R. and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MA: Ballinger.
- Joinson, A.N. (2003).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Internet Behavior*. Palgrave McMillian.
- Kiesler, S., J. Siegel. and T.W. McGuire.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1123-34.
- Longshore, D.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A Prospective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Social Problems* 45:102-113.
- Longshore, D. and Turner, S.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Cross-sectional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5:281-98.
- Malin, J. and Fowers, B. (2009). Adolescent Self-Control and Music and Movie Pira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718-722.
- Matsueda, R.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489-504

- Meier, R.F. and Miethe, T.D. (1993). Understanding Theor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Crime and Justice, Vol 15, A.J. Reiss and M. Tonry(e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sgood, D.W., Wilson, J.K. O'Malley, P.M., Bachman, J.G. and Johnston, L.D.. (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635-55.
- Patchin, J.W. and S. Hinduja.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and Society 43(2):727-751.
- Postmes, T. and R. Spears. (1998). Deindividuation and Anti-Normative Behavior: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2:238-59.
- Pratt, T.C. and F.T. Cullen.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931-64.
- Skinner, B.F. and Fream, A.M. (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Analysis of Computer Crim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495-518.

Testing the Explanatory Factors, Anonymity and Their Interaction Effects on Cyber Crime in Social Network Service

Lee Seong-Sik*

This study examines the explanatory factors of cyber crime on social network service and tests the effects of those variables such as family and school strains, attitude toward law violation, low self-control, and tim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s on testing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ose factors and anonymity in order to show how the effects of those variables are high when the degree of anonymity is high. Using data from 486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stain variables and low self control are not significant. It is also found that attitude toward law viola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cyber crime and that time use of SNS has the largest effect on it. In addition, results show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nonymity and attitude toward law violation is significant. That is, those who have a attitude favorable to law violation are more likely to commit cyber crime in social network service when they use it anonymously. However, results show tha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other variables and anonymity are not significant.

❖ Keyword: Social Network Service, Cyber Crime, Anonymity, Time Use of SNS, Attitude toward Law Violation

투고일 : 2월 4일 / 심사(수정)일 : 3월 20일 / 게재확정일 : 3월 20일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